

천국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이혼주 희곡집 1

나비야 생각나니?

봄이 되면 우리는 북을 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잖아.

맨 처음 내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아주 큰 서커스단에서 외줄 타기를 하고 있었어.

얇고 반짝반짝 빛나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을 나르는 나비처럼,

물 위를 걷는 소금쟁이처럼 말이야.

나는 그 길로 고향을 떠나 서커스단을 따라 나섰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

그런데 우린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차 례

- 머리말 · 5
- 선국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 9
- 죽이기도 많은 지에 대한 책임 · 71
- 록무지컬 평등 · 115
- 미용이와 도용이의 파란별나라여행 · 191
- 아들을 나는 우산 · 219

머리말

0장. 찌꺼기들....

1. 1995년, 내가 회곡이란 것을 쓰기 시작한 이후 무대에서 공연된 작품들만 모았다. 내게 있어 '공연되지 않는 회곡'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이고, '공연이 끝나버린 회곡' 또한 가장 슬프고 허무하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처럼 '덧없는' 것이다. 공연의 세계는 활기차고 아름답고 역동적이지만 내 글들은 허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들 밖에 없는 초라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는 종이 문치일 뿐이다. 이런 이유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혼자 작업을 해야하는 나는, 언제나 공연의 세계를 동경하고 사랑한다.

배우들의 생기 있는 목소리, 반짝이는 눈빛, 한숨과 눈물, 연출가의 고함소리, 어둠 속에서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 무대 조명 아래 춤추는 먼지들.....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모인 글들은 그때 그 공연들의 찌꺼

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난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

2.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작업은 아이들을 위한 작품을 쓰는 것이다. 이 책의 뒷부분 <과란 별나라 여행>과 <하늘을 나는 우산>은 아동극 대본이다. 처음 경성대학교 문화부에서 아동극 대본을 써달라고 의뢰를 받아 <과란 별나라 여행>을 쓸 때만해도 나는 정말 '아동극 퍼윈' 쓰고 싶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누구에게든 감히 말한다. 아이들은 최고의 관객이라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반응한다. 아니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하고, 즐거우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큰소리로 웃는다.

이런 아이들과 관객석에 앉아서 같이 공연을 본다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다. 마녀와 싸우는 마법사 할머니를 이기라고 큰소리로 응원하고, 위기에 빠진 동룡이에게 어서 어서 일어나라고 소리쳐준다. "어디 얼마나 잘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팔짱끼고 무섭게 바라보는 어른관객들과는 다르다. 아이들은 무대 위의 배우들과 하나가 되어 웃고 울고 즐거워한다.

그럼, 이제 작품을 쓰면서 느낀다. 아이들의 표정과 눈빛, 그들에게 보여줄 즐겁고 신나는 장면 하나 하나가 눈앞에 그려진다.

3. 회곡집을 낸다고 원고들을 정리하면서 첫 작품 <죽이지도 않은 자에 대한 책임>을 공연하던 날이 생각난다. 나는 며칠동안이나 연출, 배우들과 극장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공연준비를 했는데, 공연이 시작되는 당일 어찌나 긴장이 되고 떨리던지 마음을 달래느라고 새벽부터 일어나 극장 청소를 시작했다. 객석 의자를 들어내서 쓸고 닦으면서, 내가 아는 모든 신(神)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재발 아무 탈없이, 무사히 공연을 마치게 해달라고 말이다.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바랬던 적은 없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을 갖게 되는 것.
그건 내 생애 최고의 사건이었다.

4. 지면을 빌어 언제나 나의 정신적 지주이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 겨울
이혼주 씀

이혼주 회목집
천국으로 매달려 드립니다

이혼주 지음
심성개발연구소 기획
이누커뮤니케이션 펴냄

2002년 12월 1일 초판 1쇄 인쇄
2002년 12월 5일 초판 1쇄 발행

이누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52-2번지 동진B/D 401호
전화 051_441_2025
등록 제 02-01-317호
값 8,000원

ISBN 89-952257-1-8